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형성과 변이

김한철

I. 들어가는 말

포르투갈어(이하 포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다.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세력을 넓혔던 여러 유럽 국가로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한 언어였다. 유럽대륙 남서쪽의 끝에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 서쪽의 작은 국가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세계로 포어를 전파하였다. 포어는 브라질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 전세계 1/7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실무어로도 쓰이고 있다.

기존의 유럽 포어와 비교하여 브라질 포어는 발음, 문법, 어휘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브라질의 형성 과정을 보면 유럽 문화 외에 인디오 문화와 흑인 문화가 통합되었듯이, 브라질에서 쓰이는 포어는 브라질 원주민 언어인 투피어, 흑인 노예 수입으로 들어온 아프리카어,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온 무수한 이민자의 언어적 영향으로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였다. 실제로 브라질인이 사용하는 포어는 유럽 포어와 뿌리는 같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변이를 겪

으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질식의 포어를 아예 줄여서 ‘브라질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언어학적으로는 ‘브라질 포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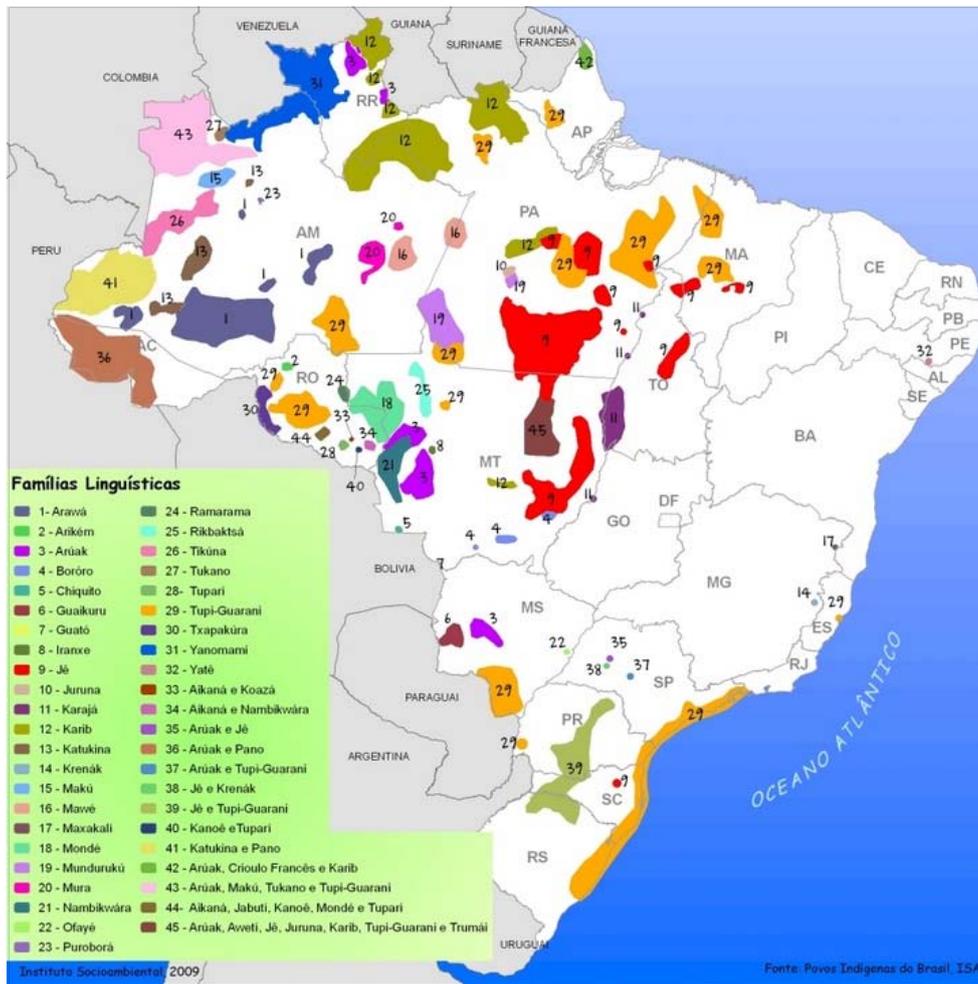
II. 브라질 포어의 형성

먼저 1500년 브라질이 발견된 이후, 1532년부터 실질적인 식민화가 시작된다. 16~17세기에 포르투갈인들에 의한 식민화 작업이 있었고, 18세기부터 ‘일반어’(língua geral)를 말하던 상파울루주민, 파울리스타(paulista)에 의해 미나스 제라이스, 마투 그로수 및 남부지방의 식민화가 진행되었다. 당시 대략 300개의 언어를 사용하던 100만 명 이상의 인디오가 있었고, 18세기까지는 인디오 언어가 사용의 우위를 보였기에 포르투갈인도 인디오의 언어, 투피어를 배워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1만개 정도의 투피어 어휘가 브라질 포어에 수용되었다. 대부분 Ipanema(이파네마), Iguacu(이과수)와 같은 지명, piranha(피라냐), jacaré(악어), abacaxi(파인애플)와 같은 동·식물명, Iara(야라), Ubirajara(우비라자라) 등과 같은 인명의 고유명사에서 투피어가 사용되고 있다.

포어는 아프리카어의 영향에도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 왜냐하면 1538년에서 1855년까지 300여 년 동안 약 1,800만 명의 흑인노예가 수입되어 백인과 인종적·문화적으로 교류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 전래된 흑인의 문화는 둘로 나뉜다. 먼저 방투 문화는 앙골라, 모잠비크, 콩고 등의



전세계 포르투갈어 화자수



브라질의 여러 언어

나라에 근거한 문화로, 남동부의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와 북동부의 마라녜(Maranhão), 페르남부쿠(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에서 두드러지며, 수단 문화는 수단, 세네갈, 기니, 나이지리아 등에 근거한 문화로, 주로 북동부의 바이아(Bahia)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300여 개의 아프리카어가 브라질 포어의 어휘에 흡수되었다. 특히 방투족의 언어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samba(삼바), bunda(엉덩이), cachaça(카샤사: 사탕수수 증류주), carinho(애정), caçula(막내) 등 현재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포어의 어휘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듯 브라질 포어는 유럽 포어에 인디오 언어와 아프리카 언어가 영향을 주어 새로운 변화과정을 거치며 형성되었다.

III. 브라질 포어의 특징

포어가 브라질에서 뿌리를 내리며 유럽 포어와 달라진 점은 어휘 면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측면 및 문법적인 측면에서 관찰된다. 바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브라질 전반 혹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브라질 대중 포어의 특징이다.

1. 발음, 음성적 특징

1) d 와 t 발음의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이 경우는 a, o, u 모음 앞에서는 관계없고 di, de, ti, te 상황에서만 일어난다. 예를 들어 dia(날)는 /디아/ 라 하지 않고 /지아/, tio(삼촌)는 /티우/ 라고 하지 않고 /치우/ 라고 발음한다.

2) 자음 l이 음절 끝에 올 때 반모음화 되어 u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mal(나쁜게)는 /마우/ 라고 읽기에 mau(나쁜)와 발음이 같아져 부사와 형용사간의 발음 차이가 없어졌다.

3) 이중모음을 축소하여 ei를 e로, ou를 o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primeiro(첫 번째)를 /프리메루/ 라고 읽는 경향으로 이것은 ei의 포르투갈 발음인 [aj]를 따르지 않은 경우이기도 하다.

4) 비음이 뒤에 따르는 모음 a의 개방음, 폐쇄음 구분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 '앉다'의 복수 1인칭 형태는 현재, 완전과거시제 동일하게 sentamos /생타무스/ 라고 한다. 하지만 유럽 포어에선 sentamos(현재)

와 *sentámos*(완전과거)로 다르게 발음한다.

5) *s*, *z*가 뒤에 따르는 강모음의 이중모음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복수 1인칭 주격인칭대명사 *nós*를 /노스/ 라고 읽지 않고 모음 뒤에 약한 *i* 모음을 첨가하여 /노이스/ 라고 발음한다.

6) 음절 끝 *r*은 발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falar*(말하다)는 /팔라르/ 라 하지 않고 두 번째 *a*에 액센트를 주어 /팔라/라고 한다.

7) 자음 충돌 시 음절을 개방하여 발음한다. 예를 들어 *advogado*(변호사)는 /아드보가두/ 라고 발음하지 않고 *d*와 *v* 두 자음의 사이에 *i* 모음을 넣어 /아지보가두/ 라고 발음한다.

8) *ocê*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제 발음 /보세/ 라고 하지만, 뒤의 단어들과 함께 쓰일 때는 *você* > *ocê* > *cê*로의 발음상 변화를 겪어 *cê* /세/로만 발음된다.

2. 문법적 특징

1) 목적격대명사의 후치법 및 중치법(목적격대명사를 동사의 미래나 과거미래 형태와 함께 쓸 때 분절되는 현상)을 사용하지 않고 전치법을 선호한다. 즉 동사 앞에 목적격대명사를 위치시킨다.

ex. *Dá-me um real.*

-> *Me dá um real.* (내게 1헤알만 줘.)

Eu dar-te-ia um real.

-> *Eu te daria um real.* (나는 네게 1헤알을 주려고 했다.)

2) 전치사 *a*(~로) 대신 전치사 *em*(~에)을 이동 의미의 동사와 함께 사용한다. 뒤에 나오는 정관사와 결합하여 *em*은 주로 *no*, *na*, *nos*, *nas*의 형태로 나타난다.

ex. *Ele foi ao banheiro.*

-> Ele foi no banheiro. (그는 화장실에 갔다.)

3) 직접목적격대명사 위치에 주격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ex. Eu vi-a.

-> Eu vi ela. (나는 그녀를 보았다.)

4) 'estar a + 동사원형' 형태인 진행형을 'estar -ndo'로 표현한다.

ex. Eu estou a beber.

-> Eu estou bebendo. (나는 술 마시고 있다.)

5)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haver 대신 ter 동사를 사용한다.

ex. Aqui há muitas pessoas.

-> Aqui tem muitas pessoas.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6) 조건법에서 과거미래 형태 대신 불완전과거 형태도 사용한다.

ex: Se eu tivesse dinheiro, compraria um carro novo.

-> Se eu tivesse dinheiro, comprava um carro novo.

(내가 돈이 있었다면 새 차를 한 대 샀을 것이다.)

8) 동사의 미래 형태 대신에 ir+동사원형 형태를 사용한다.

ex: Eu jogarei bilhar amanhã.

-> Eu vou jogar bilhar amanhã. (나는 내일 당구를 칠 것이다.)

9) '우리'라는 의미의 1인칭 복수 주격인칭대명사 nós 대신 3인칭 단수 형태를 따르는 a gente의 사용이 많다.

ex: Nós cantamos bem.

-> A gente canta bem. (우리는 노래를 잘한다.)

10) 지시대명사 isto(이것)와 isso(그것), este(이(것))와 esse(그(것))간의 구분이 사라져 isso와 esse가 '이것'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ex. O que é isto?

-> O que é isso? (이것은 무엇입니까?)

11) 목적격대명사를 생략하거나 전치사+주격인칭대명사 형태로 바꾸어 표현한다.

ex: Vou lhe dizer uma coisa.

-> Vou dizer uma coisa (para você) ((너에게) 한 가지 말하겠다.)

12) 수의 일치를 정확히 하지 않고 한정사만 복수로 쓰는 경우가 나타난다.

ex: as casas brancas.

-> as casa branca. (하얀 집들)

이렇듯 브라질 포어는 유럽 포어와는 달리 변이를 거듭하여 오면서 현재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IV. 브라질 포어의 변이

언어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혹은 사회에 미치는 언어적 영향이 함께 나타나면서 다양하게 언어의 변이형이 형성된다. 각각의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황과 문맥에 따라 변해가며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시스템으로서 언어의 개념을 규정짓다 보면 그 언어 사회에서 행해지는 역사적, 지역적, 사회적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각 사회 그룹 안에 존재하는 언어 형태는 그 구성원들의 언어적 능력이 결합된 것으로 모든 측면, 즉 음성, 음운, 형태, 구문, 의미, 화용적 측면 등에서 고유한 변이가 발생한다.

브라질에서는 변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진행된 변이 연구의 예를 각 카테고리별로 제시하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각 변이의 기본적 내용에 대하여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지역별 변이가 있다. 이는 곧 그 지역의 언어 사용 특징에 의하여 다른 지역과 구분할 수 있는 요소이다. 둘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하는 사회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계층별 변이가 있다. 이러한 변

이는 어떤 그룹으로서 한정된 사회계층별 다양성에 근거하여 각 그룹마다 사용하는 언어적 형태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말하는 사람의 성(性)에 따른 성별 변이로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로 구분한다. 지역별, 사회계층별 변이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거리’의 결과라면, 성에 따른 변이형은 사회적 차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연령대의 다른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각기 다른 형태의 언어로부터 발생하는 연령별 변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변이로 의미가 시기에 따라 변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언어적 변이가 있음을 볼 때 브라질 내부에서도 포어가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브라질 포어는 식민화 과정을 겪으며 언어적 혼란 및 교환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 모든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한 가지 형태의 언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해 온 형식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사회와 언어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브라질 언어의 다양성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다. 브라질 포어는 유럽 포어와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교육하고 학습하는 문법도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한다. 브라질에서 말해지는 언어를 포르투갈에서 말해지는 포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식민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실제 언어 사용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과정을 보더라도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는 곳이다. 과거 백인, 인디오, 흑인 간의 혼혈이 이뤄지면서 언어적 혼란이 있었기에 인종 사이에 소통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의사소통의 필요성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공용어로서 포어를 채택하였고, 인디오와 흑인에게 식민개척자의 언어 사용을 의무화시켰지만 브라질에 존재하던 언어를 말살하지는 않았다. 점진적 과정에서 브라질 포어는 유럽 포어와 차별성을 갖게 되며 그것이 오늘날 브라질 포어의 변이라고 인식되는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포르투갈어 화자 분포도

V. 맺음말

약 2억 명의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브라질에서는 사회상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언어의 변이도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포어는 역사적으로 브라질이 형성된 과정과 그 맥락을 함께 하며 유럽 포어와 차별화되어 형성되었고 또 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 사회도 지역별, 계층별, 성별, 연령별로 분화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또 속한 계층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성과 연령대에 따라 표현의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언어 형태를 표출하고 있다. 유럽 포어와는 다른 브라질 포어만의 특징이 존재하고, 그 안에 또 다른 형태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 다양한 변이형이 창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변이형이 결국 하나로 수용되어 서로 존중되며 사회에 반영되는 곳이 브라질이다. 어떤 일관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화를 추구하는 브라질 사회의 다양성이 곧 브라질 포어의 다양한 변이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김한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 포르투갈어 책임교수